

#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cjcho@kiep.go.kr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 1.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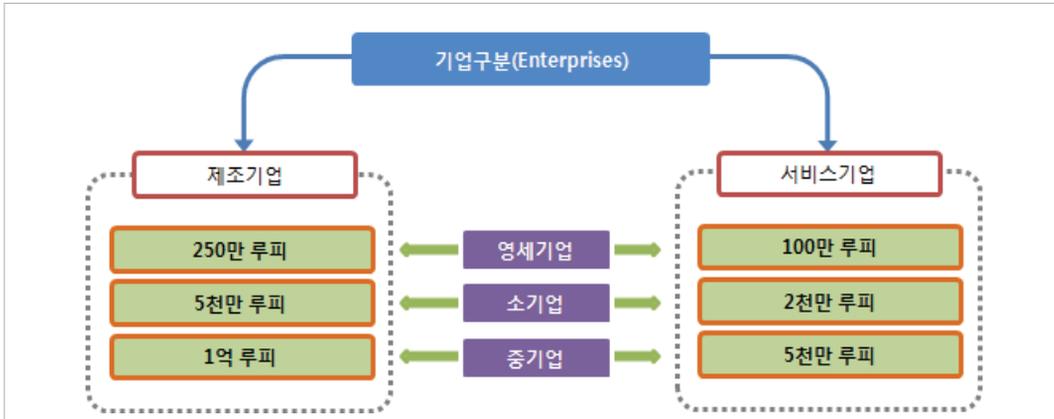
- 2014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강조
  - 한·인도 CEPA 조기 개선, 이중과제방지협정 개정, 투자촉진협의회 장관급으로 확대 개편, CEO 포럼 개최, 경제협력 로드맵 구축 등이 공동선언에 명기됨.
- 특히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로 중소기업을 강조하였음.
  -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동안 양국간 협력은 대기업 위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본 연구는 인도의 중소기업 특징과 육성정책을 세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적극 발굴하여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확대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도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정책을 분석하여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방안 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대인도 중소기업 이해도 제고 및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
  - 양국 중소기업 협력확대를 통해 양국간 투자 및 교역, 인적 및 기술 교류 확대에 기여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가. 인도 중소기업 현황과 특징

- 인도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으로 다시 제정

그림 1. 인도 중소기업(MSME)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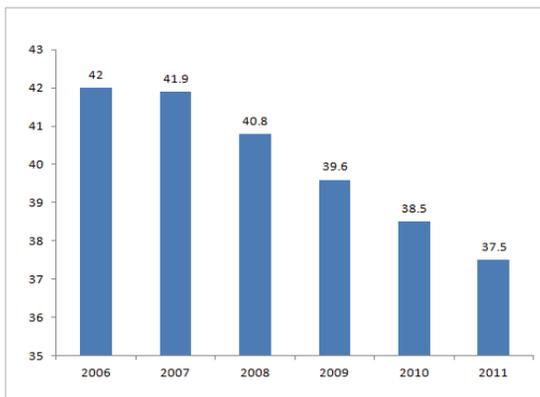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새로 제정된 기준으로 실시된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를 바탕으로 인도정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 중소기업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제조업 생산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중소기업 수는 약 4,700만 개, 고용자 수는 약 1억 명, 2011년 총생산 규모는 약 18조 루피(3,441억 달러), 총고정자산 규모는 약 13조 루피(2,208억 달러)로 나타남.
- 하지만 2006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42%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1년 37.5%까지 감소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7.8%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2011년에 7.3%까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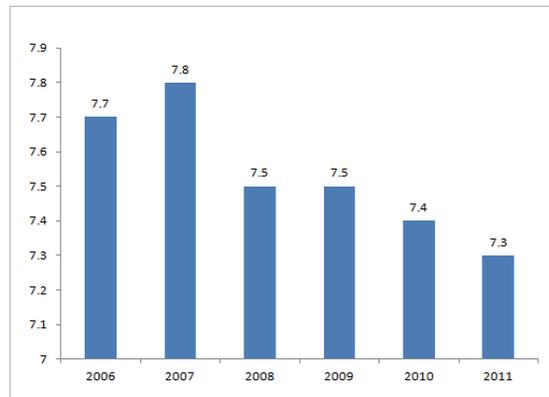
그림 2. 총 제조업 생산 대비 중소기업 생산비중(%)



주: 2006년부터 projected 데이터임.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p. 15.

그림 3. 인도 GDP대비 중소기업 생산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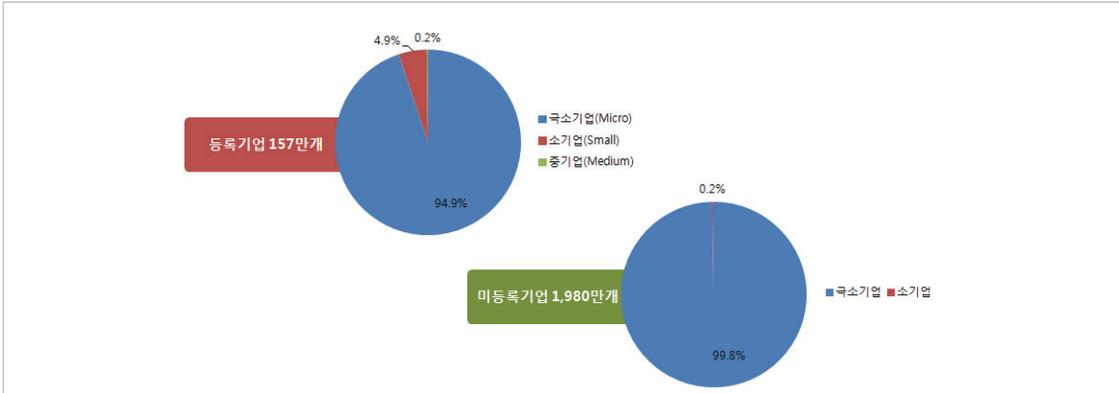


주: 2006년부터 projected 데이터임.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p. 15.

-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 형태의 극소기업(제조업 250만 루피-약 4,250만 원, 비제조업 100만 루피-약 1,7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에 따르면, 미등록 중소기업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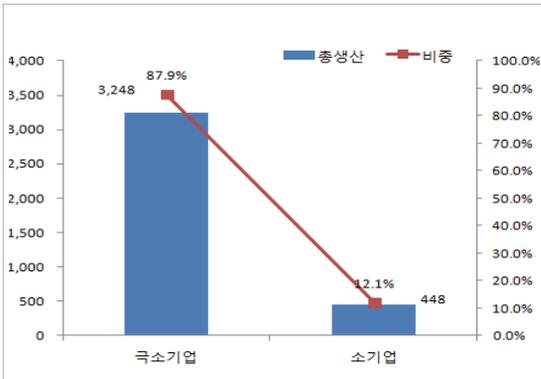
그림 4. 인도 중소기업의 형태별 규모별 분류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4); MSME Annual Report(2013-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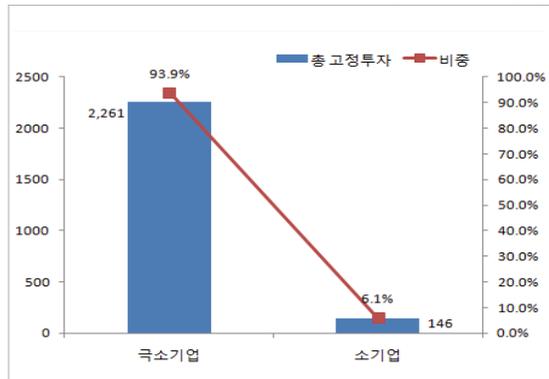
- 미등록 중소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 94%, 99.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등록 중소기업의 경우 미등록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극소기업의 비중이 약 95%로 높았지만 생산 및 투자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2%, 3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5. 미등록 중소기업 규모별 총생산 규모 (단위: 십억 루피, %)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1); Fourth All India Census of MSME(2006-07): Unregistered sector, p. 30 참고, 인용

그림 6. 미등록 중소기업 규모별 투자 규모 (단위: 십억 루피, %)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1); Fourth All India Census of MSME(2006-07): Unregistered sector, p. 30 참고,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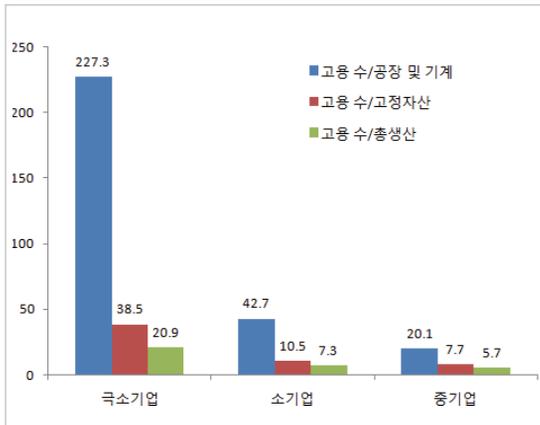
## 나. 인도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기여

### ● 인도 중소기업은 인도 전체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

- 2006/07년 인도 중소기업 센서스에 따르면 2012년(추정치) 기준 인도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고용 규모만 약 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중 대부분은 중기업보다는 극소기업(약 94%), 소기업(약 5.2%) 등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극소 및 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대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 및 고정 자산 대비 고용집중도가 중기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이는 극소 및 소기업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용을 바탕으로 섬유, 의류, 식료품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7. 인도 중소기업 규모별 고용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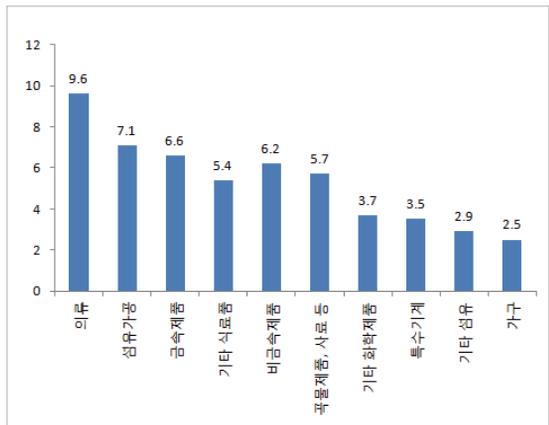
(단위: 명)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3); 'MSME Annual Report(2013-14)', p. 34, p. 40 참고, 인용.

그림 8. 인도 중소기업 업종별 고용 집중도 비교

(단위: %)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3); 'MSME Annual Report(2013-14)', p. 34, p. 40 참고, 인용.

### ● 인도 중소기업은 도시지역(45%)보다 농촌지역(55%)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인도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는 물론 농촌 등 소외지역의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과 부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 특히 극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장인(artisan)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지역 및 소도시에서 주로 분포해 있는 반면, 중소규모 기업들은 산업단지나 중소규모의 도시 인근 지역에 많이 위치하여 의류, 자동차 부품, 전기기기,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제품 업종 등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 산업 및 균형 발전에 일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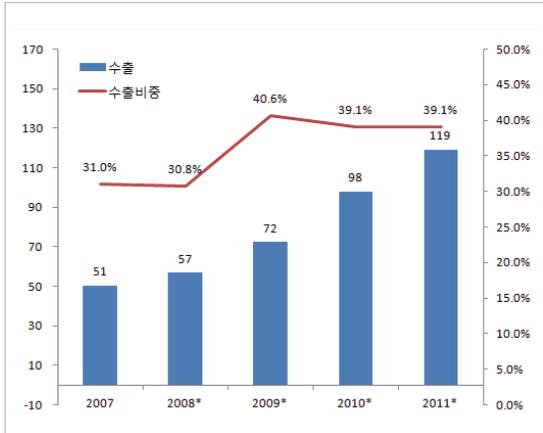
- 한편 여성, 소수 종교인, 저신분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고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인도 중소기업은 인도의 수출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인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약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지역은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UAE,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비중이 높았음.
- 한편 주요 수출품목은 엔지니어링 제품이 20%로 가장 높았고 이밖에 석유화학 제품, 보석류, 의약품 및 화약품 등이 뒤를 이었음.

그림 9. 인도 중소기업 수출추이

(단위: 십억 루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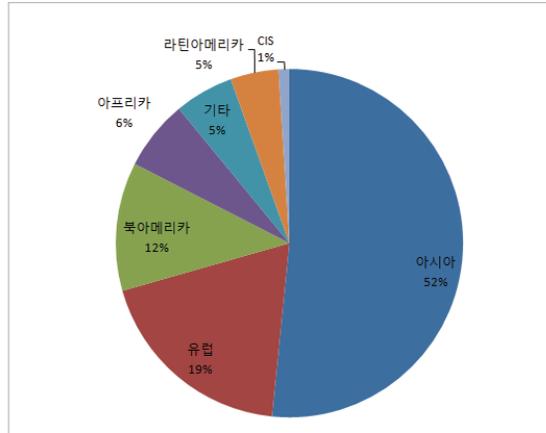


주: 수출 비중은 2011년도 기준임. \* 예측치임.

자료: 'When Small is Big; The MSME Growth Story'; Gyan Research and Analytics(2013), p. 8 인용.

그림 10. 인도 중소기업 수출지역 분포

(단위: %)



주: 수출 비중은 2011년도 기준임. \* 예측치임.

자료: 'When Small is Big; The MSME Growth Story'; Gyan Research and Analytics(2013), p. 8 인용.

## 다. 인도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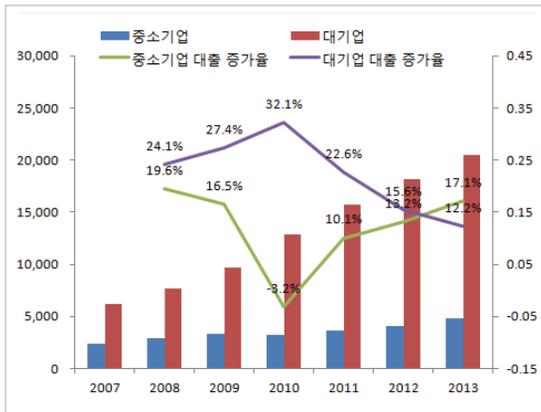
● 인도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조달 문제임.

- 인도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 및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조달받기 어려운 상황임.
- 이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낮은 성장성과 비공식 상관습(informal business practice), 담보유가 증권 관리 미흡, 낮은 신용도, 기업정보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높은 부실채권 비중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대출을 위험성이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기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약 4조 7,000억 루피로 전체 은행 대출의 18.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13년에는 대기업 보다 높았지만 최근 몇 년 간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 속도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인도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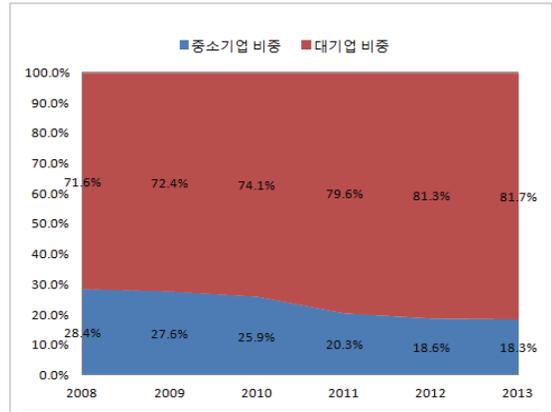
(단위: 십억 루피, %)



자료: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ECONOMY(2013-14); RESERVE BANK OF INDIA, p. 10 참고 및 인용.

그림 12. 인도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비중

(단위: %)



자료: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ECONOMY(2013-14); RESERVE BANK OF INDIA, p. 10 참고 및 인용.

● 인도 중소기업은 마케팅 및 관련 정보,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부분의 인도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시장조사 능력, 광고홍보 기술 및 역량 등을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 고객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시장 진입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 수출정보 부족, 취약한 정보 접근성 등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최근 인도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전시회, 수출박람회, 기업매칭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상당 비중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조차 매우 낮은 상태임.

● 인도 중소기업은 적절한 인력 및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구인 시스템 및 전략이 체계적인 대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비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이 부족한 상황임.

- 특히 기술 인력들의 경우 급여 및 근무 환경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지불 능력과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반면, 인적자원들의 기술 수준이 낮아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자금문제로 최신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품의 품질 하락과 생산성 하락,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짐.

● 열악한 만성적 인프라부족 문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의 전력, 교통, 수자원 등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경제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설 등의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와 생산성 하락을 유발할 뿐더러 기업들의 최신 기술 도입을 제한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적절한 인프라 환경 유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개발하는 인프라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

**라. 인도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 인도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을 제시

- MSMED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고용자(근로자), 기업가, 경영진의 기술 개발(교육)을 강화하고 기술향상 및 마케팅 지원, 인프라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함을 명시함.

표 1. MSMED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자, 기업가, 경영진의 기술 개발(교육) 강화</li> <li>■ 기술향상(technological upgrade) 추진</li> <li>■ 마케팅 지원, 인프라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li> </ul>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 강화</li> <li>■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지원 서비스</li> </ul>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강화</li> </ul>
지불지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바이어의 지불지연 금지</li> <li>■ 지불지연 시 바이어의 이자 지급 의무화</li> </ul>
관련 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별 중소기업 육성위원회 설립</li> </ul>

자료: MSME Development Institute, Ludhiana(<http://www.msmedilidh.gov.in/msmedact.pdf>, 검색일: 2014. 10. 30).

표 2. NMCP 10개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마케팅 지원(바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소 및 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바코드등록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코드등록 비용 지원(비용의 75% 지원)</li> </ul> </li> </ul>
인큐베이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큐베이터를 통한 신규 사업개발 지원(기술, 가공, 상품, 공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개발 추진에 62만 루피 지원</li> <li>- 기술지원, 워크숍 지원, 연구지원, 기업설립 지원</li> </ul> </li> </ul>
지적재산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li> <li>■ 일부 산업 및 클러스터 대상 시범연구 실시</li> <li>■ 세미나 및 워크숍 실시, 관련교육 실시</li> <li>■ 특허권 등록 보조금 지원</li> <li>■ 지적재산권 활성화 관련 기관 설립</li> </ul>
린 생산방식 도입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생산 효율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경영관리 및 공간 활용, 과학적 보관관리, 공정시간 단축 등을 통한 비용 절감</li> <li>- 중앙정부 2.6억 루피 지원</li> </ul> </li> </ul>
디자인 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4.9억 루피 지원</li> <li>- 델리에 4개 디자인 센터 설립</li> </ul> </li> </ul>
마케팅 지원(수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수출 촉진</li> <li>- 중앙정부 1.8억 루피 지원</li> <li>- 포장 기술 향상, 현대 마케팅기술 개발, 지역 전시회 개최 등</li> </ul> </li> </ul>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효율 기술 활용, 온실가스 감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6.5억 루피 지원</li> </ul> </li> </ul>
ICT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ICT기술 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클러스터 웹 포털 개발(네트워크 강화)</li> <li>- ICT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의 기술 개발</li> <li>- 중소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li> <li>- 중앙정부 4.7억 루피 지원</li> </ul> </li> </ul>
교육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센터 등 교육 인프라 확충</li> </ul>
품질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표준(QMS), 품질기술툴(QTT)을 통한 경쟁력 향상(생산성, 품질 개선)</li> <li>■ 적정 커리큘럼의 기술교육기관 도입</li> <li>■ 중소기업 인식 캠페인 추진</li> </ul>

자료: MSME Development Institute, Delhi

([http://msmedinewdelhi.gov.in/PDF2014-15/Report%20NMCP%20&%20Others%20Schemes\\_2013-14.pdf](http://msmedinewdelhi.gov.in/PDF2014-15/Report%20NMCP%20&%20Others%20Schemes_2013-14.pdf), 검색일: 2014. 10. 30).

- 또한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인 자금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대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함.

● 인도정부는 인도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제조업 경쟁력향상 프로그램(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을 마련,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강화함.

- NMCP는 마케팅 지원, 인큐베이터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생산방식 효율화, 디자인개선 지원, 수출촉진 지원,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ICT활용 지원, 교육훈련 지원, 품질관리 지원 등 10개의

1) 린생산(lean manufacturing)은 기업 생산에서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함.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임.

● 인도정부는 12차 국가개발계획을 마련, 특히 인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지원 정책을 제시함.

- 인도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금융 △기술 △인프라 △마케팅 및 조달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제도 등으로 구분함.

표 3. 12차 국가개발계획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금융 정보접근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플랫폼 추진</li> <li>■ 중소기업 클러스터 인근 은행지점 설립 확대</li> <li>■ 자금 출처 다양화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기회 확대(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엔젤펀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우주과학, 방위산업 등 지식기반 기업 지원</li> </ul> </li> </ul>
기술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교육훈련 시설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인프라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 기반의 산업인프라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개발 프로그램 지속 추진</li> </ul> </li> </ul>
마케팅 및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개발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및 국제 무역전시회 참여, 바코드, 포장 및 표준화 등</li> </ul> </li> <li>■ 공공조달정책 도입</li> </ul>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프로그램</li> </ul>
제도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li> <li>■ 전자 기업등록 시스템 추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자료: Government of India(2012); 'Twelfth Five Year Plan(2012-2017)', pp. 76-88 참고.

● 이 밖에 인도정부는 △국제협력 지원 △클러스터개발 프로그램 △기술개발 대출 연계 보조금 △마케팅 지원 등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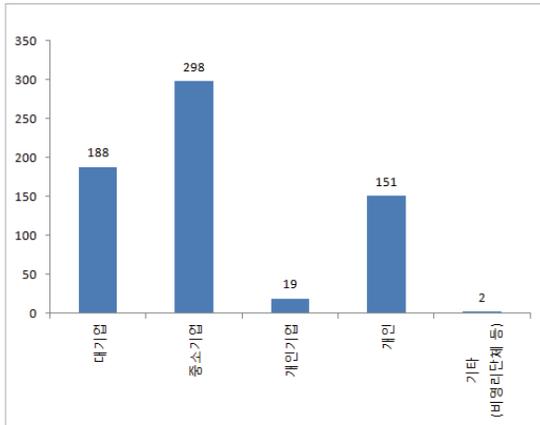
- 국제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 중소기업의 기술 습득과 업그레이드, 현대화, 수출축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사절단의 해외국가 방문 지원, 국제 전시회, 무역 박람회, 해외 바이어 미팅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클러스터개발을 통해 은행, 대출기관 등의 금융서비스 접근 및 기술향상, 교육훈련 지원, 시장접근 지원 등 극소 및 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자금문제 등으로 공장시설이나 기계, 생산 기술 등을 현대화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대출 연계 보조금을 만들어 필요 자금을 제공함.
- 이 밖에 중소기업의 마케팅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기술전시회 개최 지원, 국제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참여 지원, 국내 전시회 개최 및 무역박람회, 전시회 참여 지원, 바이어-셀러 미팅 등을 지원함.

## 마.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한국 대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도 현지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음.

- 2014년 6월 말 기준 총 298개(전체의 45.1%)의 한국 중소기업이 약 5억 달러(2013년 기준 8.7%)를 인도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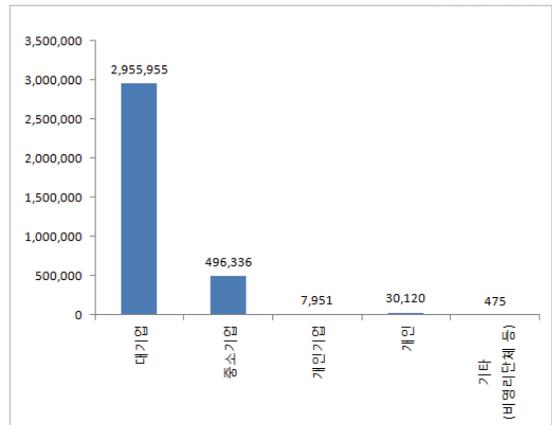
그림 13. 한국 기업 규모별 대인도 진출 기업 수  
(단위: 개)



주: 2014년 6월 말까지 반영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통계(<http://keri.koreaexim.go.kr/keri/stati/intro/define.jsp>, 검색일: 2014. 10. 1).

그림 14. 한국 기업 규모별 대인도 투자 규모  
(단위: 천 달러)



주: 2014년 6월 말까지 반영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통계(<http://keri.koreaexim.go.kr/keri/stati/intro/define.jsp>, 검색일: 2014.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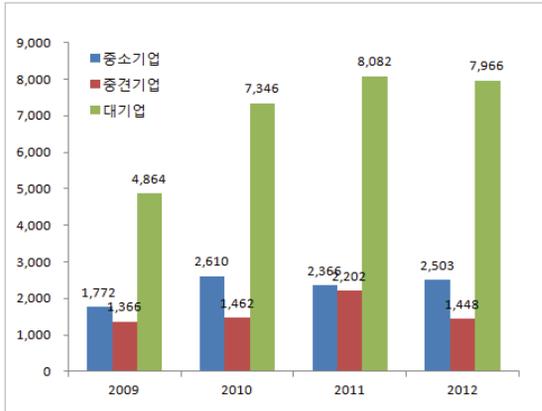
●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최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견 및 대기업과 함께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09년 17.7억 달러보다 7.3억 달러 증가한 약 2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1%로 대기업 66.8%의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전년도대비 약 47% 증가하였지만 2011년 수출이 9.3% 감소한 데 이어 2012년 역시 5.8% 증가하는데 그침. 최근 3년 평균 수출증가율은 14.6%로 대기업(20%)의 뒤를 이음.

그림 15. 한국 기업 규모별 대인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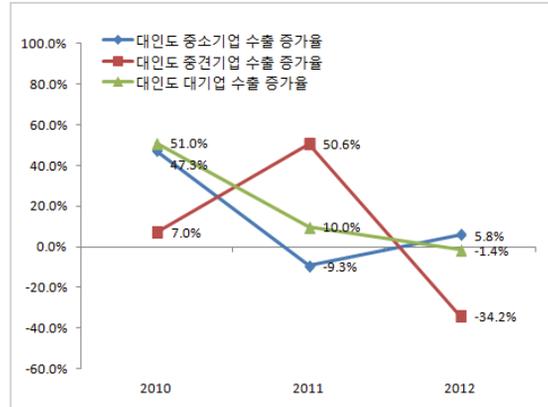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수출통계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42\\_100](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42_100), 검색일: 2014. 10. 1).

그림 16. 한국 기업 규모별 대인도 수출 증가율

(단위: %)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수출통계([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42\\_100](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42_100), 검색일: 2014. 10. 1).

- 한편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융, 높은 대기업 의존도, 비자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들이 대인도 진출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조사됨.
- 또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평균 투자규모는 160만 달러로 인도의 개정된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초과하여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도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에서 소외되어 있음.

### 3. 정책 제언

- 상기 분석결과를 SWOT 매트릭스로 전환하여 각각의 조합별로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방향 및 과제를 장단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 양국의 기존 지원정책을 복합화한 융합형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지원정책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상생형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구체적인 사업은 이하 표 참조).
  - 그러나 중장기 협력과제인 양국 정부주도의 창조적 협력사업 개발은 기존 지원정책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4. 12차 국가개발계획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주요내용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중심 진출</li> <li>-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현지의 높은 인지도</li> <li>-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li> <li>- 현지진출 대기업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획득의 어려움</li> <li>- 열악한 인프라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li> <li>- 현지금융의 어려움</li> <li>- 높은 현지진출 한국 대기업 의존도</li> <li>- 단기비자 및 직항부족</li> <li>- 일본에 비해 낮은 국가 신뢰도</li> </ul>
		단기: 융합 협력(S-O)	중단기: 상생 협력(W-O)
인도 중소기업 특징 및 정책	기회 (O)	(방향 및 과제) - 경쟁력 높은 제조기업의 우선진출 지원 강화 · 단선 지원 지양 · 복합적 지원 강화 · 지원 기관간 협업 강화	(방향 및 과제) - 현지 컨설팅 강화 - 한국전용공단 조성 등 집적화 강화 - 금융지원 강화 - 대기업 의존도 감소 - 장기비자/ 직항편 확대
	위협 (T)	(협력 수단 및 사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사업 -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 - 중기 수출역량강화 사업 - 수출/투자 인큐베이터	(협력수단 및 사업) - 현지 민간네트워크 확대 - 현지 교육훈련 강화 · 주재원 사관학교 · 법인장 사관학교 - 인도정부/공공기관과 제휴 및 협력 확대 - 중소기업협의회 결성 - 국가브랜드 제고 - CSR 강화
		중단기: 상생 협력(S-T)	중장기: 창조 협력(W-T)
		(방향 및 과제) - BOP시장 진출 교두보로 진출지원 강화 - 특구 및 낙후지역 진출 인센티브 활용 강화(협력수단 및 사업) - SEZ, EOU, STP, 보세가공구(FTWZ) 인센티브 - 북서부/북동부 낙후지역 인센티브	(방향 및 과제) - 정부주도 새로운 협력체제 및 사업 전개 (협력수단 및 사업) - 한·인도 민간 중소기업 협력센터 - 인도판 창조경제혁신센터 - 한·인도 공동 펀드

자료: Government of India(2012), pp. 76-88 참고.

## 가. 한·인도 민간 중소기업 협력센터 설립

- 한국과 인도는 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량과 양국 민간 기업단체의 역량을 결합시킨 가칭 한·인도 민간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양국에 설립, 각각 가동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센터는 기존의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양국 현지에서 각각의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즉 시장 및 경영, 정책 정보는 물론 네트워크 확대, 기업 및 기술 매칭, 각종 조사, 인큐베이팅, 애로사항 해결, 양국간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자금지원 알선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수출 및 투자 활성화, 현지화를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망라하여 단일 창구,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양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을 양국에 상호 파견하여 현지 공공 지원기관들과의 협업을 유도하고 민간기업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 센터는 현재 일본이 인도에서 운영 중인 ‘재팬 플러스(Japan Plus)’와 같은 일·인도 정부간 투자진흥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견제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한·인도 간 경제협력 촉진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표 5. 재팬 플러스(Japan Plus) 및 코어 그룹(Core Group) 설치 및 운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0월 8일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mp; Promotion) 내에 재팬 플러스를 설치</li> <li>- 일본 경제산업성 공무원이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맡고 인도 공무원 4명과 일본 경산성 공무원 2명으로 팀을 구성</li> <li>- 인도측은 일본의 대인도 투자를 촉진하는 전방위 지원, 즉 조사, 매칭, 협력, 촉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본의 대인도 투자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범분야 투자를 유도</li> <li>- 일본측은 특히 투자유망 일본 기업을 발굴 및 알선하는 데 주력, 여기에는 일본 중소기업도 포함</li> <li>- 이와 함께 양측은 경제 및 산업 관련 부처, 철도, 도시개발, 전자 및 정보통신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되는 코어 그룹 회의를 설치</li> <li>- 일본의 대인도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범부처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li> <li>- 재팬 플러스와 코어 그룹 회의는 2014년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일·인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향후 5년내 350억 달러(약 3.5조 엔)를 인도에 투자하여 진출기업 수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양국간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li> </ul>
--

자료: 일본([http://www.meti.go.jp/english/press/2014/1010\\_03.htm](http://www.meti.go.jp/english/press/2014/1010_03.htm), 검색일: 2014. 10. 22);

인도 정부([http://business.gov.in/investment\\_incentives/index.php](http://business.gov.in/investment_incentives/index.php), 검색일: 2014. 10. 22) 홍보자료 내용 정리.

## 나. 인도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기업과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창조역량 결합 시스템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 센터는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어젠다를 발굴하고 촉진하며,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인도내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의 발현을 촉진하고 예비 창업자 및 투자자들을 매칭하고 교육 및 컨설팅하여 창업 및 투자를 유도하는 창업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멘토링, 기술공유, 마케팅 지원은 물론 전용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이 인도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진출 및 현지 창업을 고려중인 예비 중소기업과의 대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와 현지 경험 전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협력회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도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규제(2) 창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표 6. 인도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역할

대인도 진출 교두보	
혁신 거점	창업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도 진출 확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어젠다 발굴 및 촉진</li> <li>- 현지 진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지원 기관 간 연계 및 협업 유도</li> <li>- 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진출 및 성장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제공</li> <li>-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li> <li>- 산·관·학·연 전략적 파트너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발현 촉진</li> <li>- 교류 및 협업, 매칭, 멘토링</li> <li>- 교육 및 컨설팅, 투자 알선</li> <li>- 창업준비 - 인큐베이션 - 창업 및 투자 창업사다리 제공</li> </ul>

자료 :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ccei.creativekorea.or.kr/main.do>, 검색일: 2014. 10. 22) 내용 등을 응용하여 작성함.

#### 다. 한·인도 공동펀드 조성

- 양국 진출을 시도하거나 기 진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공동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양국 정부는 조성된 자금을 각국 진출 은행에 위탁하여 자국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혁신 기술 기업의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창업투자사를 선정,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창업투자는 2014년 1~9월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구미 및 일본의 우수 IT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털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인도의 발전된 IT 소프트웨어 기술, 우주항공 기술, 또는 양국간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환경, 원자력, 방산 부문의 공동연구 및 개발, 창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대인도 투자에 보다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조성, 운영되고 있는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인도는 기업법(Company Act) 개정을 통해 적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2%를 CSR활동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2013년에 통과시켰다. CSR활동에는 일반적인 기부는 물론 낙후지역 개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 인큐베이터 등이 포함된다(Business standard, 'An overview of CSR Rules under Companies Act, 2013. March 10, 2014).

## 표 7.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운영 사례

- 1999년 양국간 관련 조약 체결
- 2001년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설립, 양국이 각각 200만 달러 기금 적립
  - . 2001~04년 각각 100만 달러, 2004~12년 각각 150만 달러, 2013년 이후 각각 200만 달러씩 조성
- 2014년 4월까지 총 3,700만 달러를 조성, 양국 공동 R&D 지원 중
  - . 총 132개 과제에 총 3,400만 달러 지원
  - . 종료과제 53개 중 25개 과제에서 총매출 2,500만 달러 등 가시적 성과 발생
- 2014년부터는 무인항공기, 정보보안 등 전략기술 분야 기술협력 본격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 4. 18) 보도자료 「한·이스라엘 창조경제 기술협력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참조하여 주요내용을 발췌, 정리.